



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

2017년의 따뜻한 시작 사랑의 키트 나눔 & 지역사랑나눔캠페인 진행



첫 번째 이야기

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월 19일(목)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키트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2017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 참여한 학생들과 인천교통공사 1호선 운영사업소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키트를 만들고, 전달까지 해 더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특별히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서는 사랑의 키트 제작 전 직접 만나 뵈게 될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편지와 '어르신에게 필요할 것 같은 물품'을 골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.

키트 제작의 시간,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을 상자에 가득 담아 채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줄을 지어 섰습니다. 각자 맡은 물품들과 상자를 앞에 쌀 한 포대, 몇가지 즉석반찬 등 생필품을 담으며 직접 밥 한끼를 대접할 순 없지만 오늘은 따뜻한 밥을 지어 배를 채우실 수 있길 바라는 작은 마음도 함께 담아 넣었습니다.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만 꽉꽉 채워 담아 완성된 사랑의 키트는 청소년, 인천교통공사 자원봉사자분들의 손에 들려 부평구 산곡동, 십정동 내 곳곳 우리 이웃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.



차디찬 방에 앉아 쓸쓸히 시간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은 양손 가득 무거운 상자를 든 봉사자들의 방문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함박웃음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. 봉사자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. 어르신들에게 직접 쓴 편지도 읽어드리고 미리 설날을 맞아 세배 인사도 드리며 어르신들의 쓸쓸함도 달래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. 상자 안 가득 들은 사랑이 우리 이웃분들의 추운 마음을 달래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
두 번째 이야기

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? 마주치는 이웃에게 안부인사를 건네보세요.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됩니다.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3일(월)에는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지역사랑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캠페인은 잊혀진 이웃과의 소통을 독려하자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. 부평시장역을 지나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이웃 간 따뜻한 안부인사를 물으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핫팩을 나누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. 직원들과 자원봉사자가 나누는 따뜻한 새해인사에 꽂꽂 언 길과 매서운 바람으로 종종걸음으로 길을 지나던 분들도 관심을 보이시고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.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주민분들에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속해서 이웃 간 관심과 사랑을 살리기 위해 더 뛰며 노력하겠습니다. 2017년,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따뜻한 시작을 응원해주세요.

